

사랑은 금·반·지가 아니다.

愛포리즘

a p h o r i s m

KIM CHUL

愛포리즘

*aphorism*¹

1 愛포리즘: [글쓴이] Aphorism의 발음 /æfərɪzm/ 한글 표기 애포리즘을 애를 한자 愛포리즘으로 조어함. 한글 표기는 아포리즘. 경구, 잠언, 격언, 금언金言. [사랑의 금언].

차례

01	갓 구운 애플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4
02	‘빼앗기면 안 되니 빼앗지 않는다.’	5
03	모두가 변한다고 말하지만	7
04	내가 안 죽었다고	8
05	여행 짐을 쌀 때 어디를 얼마간 다녀오느냐	9
06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0
07	내가 만일 어떤 성城의 주군主君이라면	11
08	정말 말도 못 할 정도로 말들 못한다	12
09	망시忘時하고 있는 일상을 삶으로 산다	13
10	뒤집어 본 적 있는가? 두 쪽 모래시계를	15
11	유대인 죽음의 수용소, 북한 정치 수용소收容所	16
12	심장 펌프질, 혈관 혈류 흐름, 향온 작용.	17
13	사랑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무욕의 심心이 아니라	18
14	곁에 누가 없다고 외로운가?	20
15	계곡에서 죽은 나무를 가져와 작업을 했다	21
16	어두움 속이라면 밝은 곳을 생각하지 마라	22
17	이름이 같은 어릴 적 친구 셋이 오랜만에	23
18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24
19	요즘 금 값어치가 금이 좋다	26
20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	27
21	내 삶에는 잔여 시간이 있어요	28

22	나는 집도 차도 돈도 필요로 해요	30
23	이 글을 쓰고 저 방으로 가	32
24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33
25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리가 내렸다	34
26	말 잘 못해서가 아니라	35
27	과거가 잊어버린 나	36
28	쇼펜하우어, ‘인생은 시계추’	37
29	유토피아, 인간이 ArtificialSuperIntelligence까지	38
30	아집 없는 고집은 없기에	40
31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안은 받거나 산 것이 아니다	41
32	추워도 더워도 눈, 비 와도 천둥번개에도	42
33	요즈음 십 대들 중 많은 여학생들이	43
34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엔 아침과 오전까지	45
35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자	47
36	‘하루 종일 어떻게 있고 싶어?’	48
37	빛이 넘쳐흘러요 오늘 아침부터	49
38	짜짓기는 움직이는 생명체이면 존재의 이유.	50
39	내가 원하는 나를 그리며	51
40	세상 끝날까지	52
41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갈 정도로	53
42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묻고 싶다:	54
43	내 시선.	55
44	인생을 참으로 즐기는 방식은?	57
45	짧게 말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58

갓 구운 애플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전 중엔 355일 먹지 않는 것들

365일 오전 늘 마시는 갓 내린 커피와
글 읽고 글 쓰며 오늘은 함께 먹었다

배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글 적는
매일 루틴에 차질이 생긴 것은 없다

이들 행위는 일 아닌 나의 일 순위이다:
사유와 독서, 몰입과 상상, 글적임과 쓰기

내가 나를 더 자유하게 하는 반복은 ‘널 위해
주어졌다’ 하는 세상의 모든 율법들을 범한다

실제 오전에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지만 사실은
나를 자율하게 하는 나만의 리듬 때문일 뿐이다

오전에 하면 더 좋은 것들은 오전에 만끽하는 나.
파이 &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나. 언제라도 먹는다

사랑은 금·반·지가 아니다. 금하고 반대하고 지시하고
지시받는. 자유롭게 좋아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빼앗기면 안 되니 빼앗지 않는다.’

빼앗는 자들조차 빼앗겼던 것들로

비정과 강제라는 뽕끼²로 칠갑된

[빼앗다]를 누군가에게 실행한다

빼앗는 자들과 빼앗기는 자들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

어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나 거긴 향유³되는 자주⁴적 화평은 없다

2 뽕끼: 영어 paint가 일본어 /뽕키/에서 변형된 표현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쓰였던 비표준어.

3 향유享有: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림.

4 자주自主: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

빼앗기려 내놓는 자. 미친 세상 주범 광인狂人?

빼앗으려 다 주는 자. 피싱 사기 주범 죄인罪人?

ㅁㅁ 〇 ㄷ , ㅁㅁ 〇 ㄱ ㄷ

이 자음들이 어떻게 보이고 어찌 이해되는가?

미친 세상 멤버들은 빼앗기지 않고 축적하는 사람들

사기 범죄 조직원은 빼앗는 일을 하며 버는 사람들

광인은 사랑에 깊이 취해 다 내어 주려 하는 이들

죄인은 발등상 자신 깨어 주고 되사랑 빼내는 자들

모두가 변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솔직한 사람이면 외치리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새로울 것이 없이들 산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심心뿐
 자신을 새롭게 하는 새로움은
 제 발 제 자리에선 볼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알고 살體驗아간다:
 깰 때에 깨어남에 나는 새로움
 어떤 일에도 그 함에 나는 새로움
 먹고 자고 씻음에 나는 새로움

새로움은 소망도 바람도 목적도 열정도
 다 필요 없는 자족함 = 사랑 작동 상태.

세상 어찌 변하든, 오랫동안 그대로이든
 내 몸, 마음, 생활 상태가 신선함 = 새로움

내가 안 죽었다고
 먹어도 된다 하며
 파는 것 사 먹는다

다른 생명 몸 먹고
 제 몸 채우고 산다
 교감 안 되는 생물

사람이 사람을 먹진
 못한다. 저들끼리는
 교감이 절절 흐른다

이제 개는 못 먹는다
 허나 소와 돼지 & 닭
 배불러 안 먹을 정도

아프리카, 남미의 노예
 그 당시 인종 간 무감.
 교감이 없으니 그랬었다

나는 교감할 때 외에는
 식육자, 싸움꾼, 착취자.
 교감할 때만 인간일 뿐

여행 짐을 쌀 때 어디를 얼마간 다녀오느냐
이를 기준으로 물품들을 챙겨 가방을 꾸린다

인생 여정은 목적지가 무덤, 다녀는 못 온다.
해서 일반적 여행과는 차이가 있다. 편도 여행

가고 있다. 방금 지나 지금까지 & 한동안.
올 것 없다. 절대 되돌아올 것 & 곳 없다

그럼에도 전쟁 통 피난민 괴나리봇짐들 싸듯
이고 지고 품고 잡고 끌고 별반 다름없는 삶

여행 중 필요한 것들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정 중 변하는 운명의 계절 용품을 갖추는 능력

지니고만 있는 것들 &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들
골라 던져버리고 내게 꼭 필요한 애용품들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삶이 뭐 있다고 그 비결을 묻는

흔치 않은 상황. 40대 초중반 남성

겸손할 것도 없이 내 삶은 내가 나답게

싫음liking하는 바대로 구현해 내 체험하고

있을 뿐. 아무도 아닌 이nobody one의 생활인데

그렇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럼 진짜 비밀 하나 알려 줄게요!

누구에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하면!’

절대 혼자만 알고 있을 테니까 자기 믿고

알려 달라고 했다. 해서 답을 말해 주었다:

‘그건 진짜 비밀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비밀’

돈 더-성공-무병장수 하는 비결, 비법들 천지.

숨겨서 비밀이라지만, 비결도 숨길 것도 없는

진짜 비밀을 품고 사는 마음, 알라딘의 램프

내가 만일 어떤 성城의 주군主君이라면

성문을 견고히 만들고 관리하는 목수와
성벽을 견강히 축조할 기술자 장인들로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한다

성문을 견실히 지키는 수문장을 둘 테고
수시로 들락거리는 악한 목적의 첩자들을
식별해 색출해 널 암행 기사단을 만든다

외부와 전쟁을 하면 장수로 나가 담대히 싸우고
내부의 분쟁은 나를 살피 일을 담담히 살핀다
사절단이 오면 맞아들여 향연을 담백하게 베푼다

외부로의 천재지변, 침략, 침입, 전투. 진두⁵와 지휘
안으로의 불안, 불평, 갈등, 다툼, 고통. 주시⁶와 분별
친밀한 관계 간 대화, 만남, 흥락, 운우. 진심과 사랑

5 진두陣頭: 일을 할 때의 맨 앞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군대 진영의 맨 앞.

6 주시注視: 어떤 일에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핌. 어떤 목표물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봄.

정말 말도 못 할 정도로 말들 못한다
말들만 하고하니⁷ 생각에는 정신없다

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이들도 손으로
말 못 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도 눈으로

그런데 말할 수 있는 발성 기관이 있고
주로 자기 말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생각을 담지 않은 말은 도중에 주저앉는다
마음 없이 하는 말은 바로 증발해 버린다

듣고 싶어 하는 상대의 마음 보면서 말한다면
전해 주고 싶은 情말을 온기로 데워 전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번만 산다. 그 한 번 속에
어떤 마음·온도·본새⁸·리듬의 말을 채울까?

7 하고하다: (어떤 사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

8 본새: [+本-새] 어떤 행동이나 버릇 따위의 됃됨이.

망시忘時⁹하고 있는 일상을 삶으로 산다
지금 여기에는 분명 지금과 여기만 있다

망각忘却¹⁰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만 망시로 잘 가는 날에는 기억 작동 중지

망각妄覺¹¹이 일어나지 못한다. 망시될 때엔.
되레 시간 속, 스마트 속, 게임 속에선 발병 가능

9 망시忘時: [글쓰기] 단순한 몰입flow이나 몰아沒我的 상태나 경험이 아니다. 하루로 주어진 일상 나날들이 시계의 시간이나 당위의 일정에 의해서가 아닌 제 삶은 곧 제 동작, 행위, 정신, 박자, 리듬, 색깔, 비트beat의 자연스런 인위人爲로 참 잘 가는, [시간에서 벗어난 실제 현실].

10 망각忘却: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버림.

11 망각妄覺: 「심리」 외부 세계의 자극을 잘못 지각하거나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각의 병적 현상. 착각과 환각으로 나뉜다.

잊어버림 없는 잊힘으로 지금-여긴 기억하다¹²
 착각·환각 없이 날¹³것 박진¹⁴한 지금의 연속이다
 망시자忘時者는 무미¹⁵한 일상을 건조¹⁶한다
 그에게 지금-여기는 깊고 독특하고 미려¹⁷하다

12 기억하다: [岐嶷+하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다. (例) 기억한 세종대왕. 그는 어릴 때부터 기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13 날·(=날): 가공하여 쓰게 되어 있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말.

14 박진迫眞: 표현 등이 현실의 광경을 실제로 접하듯이 생생한 느낌이 있음.

15 무미嫵媚: 몸가짐이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움.

16 건조建造: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들.

17 미려하다: [美麗+하다] (장소나 작품이) 아름답고 곱다.

뒤집어 본 적 있는가? 두 쪽 모래시계를
가만 두고서 비는 것 봤는가? 시계 한쪽이

인생 뒤집어도 뭘 아는가? 생사↔사생死生
채워지는 쪽 보며 뭘 더 채우려 하는가?

행여 전복시키는 영성¹⁸ 그대에게 있다면
설령 상↔하, 부↔빈, 고↔저 돼도 복 있는 자!

비워지는 쪽에 제 사는-터를 잡아야 한다
채워지는 곳은 상喪 중, 부고訃告란이다

비어 가는 곳에, 왔던 곳이 있고 살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음에 생각과 방식을 뒤집어야 한다

쌓이는 쪽, 제 목숨 같다 하여 게서 살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쌓일 기정¹⁹사물²⁰에 매장된 채 삶

18 전복시키는 영성The subversive spirituality: 상하, 좌우, 고저, 귀천, 빈부 등의 반대되는 상태를 영적 지혜로 가치 평가하여 참값을 얻은 뒤, 자의自意로 상황과 환경을 뒤집는 인생 행동주의자 Life-activist의 생활 방식.

19 기정既定: 이미 결정되어 있음.

20 사물死物: 죽은 생물. 고장이 났거나 돌보지 않아서 실제로 쓸모가 없게 된 물건.

유대인 죽음의 수용소. 북한 정치 수용소收容所
본인의 의사 없이 사람을 가두어 넣는 곳

강제적이고 집단적인 끌려감이고 살아감이다
캄보디아 수용소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결정

예전 수용소는 주로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지금 수용소는 주로 불법적 돈벌이 목적으로

수용收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변이를 발생
시킨다. 특정 부류의 사람을 특정한 한 곳으로

수용성受容性の 개념이 사라진 자본민주개인지대.
피아彼我I&Thou 간 차이 없는 집단 영향 내內 개인들

개인들이 무리, 진영, 군중, 대중에 자의적으로 소속.
상이한 생각과 제안을 받아 제 것으로 삼음受容 없음

수용소 밖 사회 수용소 구성: 자존 없는 자아의 이들과
& 자기들만을 위한 무수용성 자유와 평등 주장 습성

심장 펌프질, 혈관 혈류 흐름, 항온 작용.
내 생명과 직결되어도 내 할 바 전무全無

폐 역시 부지불식중에 O₂ 入, CO₂ 出,
호흡하며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호흡만큼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의식적으로 호흡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폐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리라는 의지로 호흡,
즉 폐가 숨 쉬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는 없다

숨 쉬니까 살 뿐. 한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의료 기기 하나 없이도 숨을 조절할 수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쉬고... 눈을 뜨고 천천히 다시 해 보고

의식적 호흡을 할 때 심장과 내장 기관들과 혈류,
세포들에 感覺이 動한다. 이토록 오묘한 나의 몸!

사랑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무욕의 심心이 아니라
사랑함 하나를 갈구하고 갈망할 때 나타나는 심신 증세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청수清水. 절수의 생활 태도.
혹은 마음껏 쓰고 수도세 내면 된다는 생활 태도

두 생활 방식은 서로 극단으로 존재한다. 반대로서
그러나 공통항이 있다. [갈증이 없어 갈함이 없다]

25년도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을 경험한 강릉 시민들.
절수의 극단을 경험하며 심히 고생했다. 갈증은 아니다

난 빵이나 떡을 먹으면 바로 심한 갈증에 처한다
땅콩 먹고 알레르기로 온갖 곳이 붓는 그 ‘바로’

2층에 올라가 운동을 한껏 할 때나 계곡에 올라가
계곡물 끌어오는 작업을 할 때 심히 갈하게 된다

세상은 사랑-섭취와 친밀-마심에 대한 갈증이 없다
절수하거나 평평 쓰거나. 제 맘대로 쓰면 그만이다

사용-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은 이제 지구에서 멸종.
사랑-사용에 바로 이상 반응, 생활이 붓고 앓는다

사랑 수분 섭취에 갈급하여 목마른 자는 해갈함과
소생함의 통쾌痛快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 늘 사랑

곁에 누가 없다고 외로운가?
누가 있다면 그가 내 곁일까?

말과 뜻이 통하는 곁님은
내가 그런 자가 되면 있다

누가 없을 때는 외로워하자
누구도 없을 때는 고독하자

단 몸과 마음, 생활과 능력을
늘 수련하고 수행하고 키우자

계절이 갔다 하면 홀로 남은 듯.
지금 시절에 자신의 친구 되면,

새로운 삶은 오지 말라 하여도
나의 나됨에 이른 나에게 온다

곁님은 혼자 괴롭고 불안하다고
오가는 계절이 아니다. 운명의 愛

계곡에서 죽은 나무를 가져와 작업을 했다
기차선 아래 까는 침목을 반으로 잘랐다

앞 없는 나뭇가지에 붉은 주황 페인트칠을.
침목을 세워 고정해 놓고 윗면 중앙에 낸 홈

긴 홈 안에 연탄집게를 끼워 넣고 뒤에는
무게 추. 앞 꼬챙이에는 나무를 꽂아 뒀다

그리고는 나무 한 끝 균형 잡이용 네모시계.
침목 중앙, 직각으로 꺾인 꼬챙이에 노란 돌

바람이 불면 앞뒤는 아니지만 상하로 논다
움직이면서 오뎅이처럼 늘 중심을 잡아낸다

작품이라고까지는 뭐하고, 내게는 참스승.
요동함으로 중심 잡는다. 저 보며 다시 명심

어두움 속이라면 밝은 곳을 생각하지 마라
 밝은 곳 따로 없으니 그대 계속 어둠 되리라

어두움 속이라면 초 하나 성냥 하나 꺼내
 촛불 일으켜내라. 하면 그대는 밝음 속이
 초는 그대 있음am-ness 자체, 성냥은 그대 호흡.
 숨 곱게 깊게 길게 쉬어라. 념念 아닌 몸으로만

초의 수에 개의치 말라. 그대 하나 전부로
 불이 퍼지도록 하라. 한 빛에 어둠은 없다

무료함 속이라면 재미를 찾아 나서지 말라
 재미 내는 곳 따로 없으니 파랑새 찾는 꼴

무미無味한 권태 속이라면 손과 발을 빼내
 푹푹푹푹 작미作味하라. 하면 맛과 향 난다

재미는 자신의 맛滋味taste. 타인과는 그 맛 즐김.
 자신의 맛 잃었다면 즐거움을 지어낼 수 없다

맛이 짜든 달든 시든 자신의 맛을 만들어라作味
 작미 방식 제각각 달라야 재미 지는 것이다

이름이 같은 어릴 적 친구 셋이 오랜만에 만났다. 이름은
인중. 성은 각각: 백, 흑, 황씨

Mr. 백, ‘흑가家야, 여전하구나! 겔도 검고, 속도
검고! 내 부탁을 몇 번이나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린 시절부터 죽 봐 왔잖아? 그 검은 속은 내가
잘 알지. 귀신같이!’

Mr. 흑, ‘백가야, 너야말로 그대로다! 밝은 허영고, 속은
내 거죽보다 더 시커멓고! 사람들은 네 외모 보고
한달음으로 왔다가 그을린 속내 보고 나면 열 길로
돌아가잖아? 누군들 안 그러겠어? 내 감은 늘 적중하지!’

Mr. 황, ‘가만 듣고 있자 하니, 너희 둘 다 자기가 보는
감각과 느끼는 감정으로만 살아왔구나. 성씨? 피부색?
그리 태어난 걸 어찌겠어? 게다가 마음은 색이 없어. 누에
실 뽑아 고치 짓듯, 사람 속, 매일 뽑아져 나오는 실들로
둘 중 하나! 얹히고설킨 실 뭉치 덩이들! 아니면
제 무늬와 결 있게 직조된 상품上品 원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것이 주주되다²¹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 그리고 너.
 무슨 말인가? 외형상 나와 너 아닌 내면성

내면성은 또 무슨 ‘공자 왈, 맹자 왈’인가?
 맹자盲人²²라도 보고 느끼고 아는 있음의 상태

21 주되다: [+主-되_다] (무엇이) 중심이 되거나 주장이 되다.

22 맹자盲人: [글쓴이] 시력을 잃은 맹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시력자²³ 공자工者²⁴가
죽어야 된다. 무시시²⁵ 장자²⁶가 부활해야 한다

저기 산등성이까지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본다
여기 있는 것들까지만 보지 않고 제 속을 본다

맹인 거지, ‘주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주로 무시²⁷하는데 보시는 분 계셔 보게 되었다!

23 시력자視力者: [글쓴이] 보는 것,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보고 싶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의 사람.

24 공자工者: [글쓴이] worker.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실재하는 것 중심으로 일하며 먹고 사는 인생.

25 무시시無視視: [글쓴이] seeing in non-seeing. 보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시력.

26 장자壯者: [글쓴이] strong one. [니체] 위버멘쉬:초인超人. 세상의 시선과 시각의 한계를 넘어 제 시선과 의지대로 사는 진인真人.

27 무시無視: [글쓴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성을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르는 맹인 바디매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어떤 대상을 업신여겨 깔봄. 사물의 의의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음.

요즘 금 값어치가 금²⁸이 좋다
 많은 이 우러르는 자산資產 대우

미국 \$, 비트코인, 금괴gold bar, 자가自家
 이 사형제를 키우고 있다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삶을
 영위할 만한 부유한 자산가들

실제 그러한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노력, 능력, 소유! 박수!

나는 사형제든 사남매든 없다
 단 내 노력, 능력, 소유가 있다
 매일 삶에 실제 값어치²⁹를 하는
 자신, 자성, 자유, 자가³⁰의 소유자

스스로 사고하며自性 몸소 일하며自身
 내가 직접 만든自產 자유론 자가自己自體

28 금: 시세나 흥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건의 값.

29 값어치: [+값-어치]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쓸모나 가치.

30 자가自家: 자가에는 두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1.자신 소유의 집 2.자기 자체. 위는 1, 여기는 2.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
그것 좋아하게 하는 나
그를 사랑하게 하는 나
그 좋아함이 아닌 나를
그 사랑함이 아닌 나를
좋아하고 좋아할 만하게
사랑하고 더 사랑스럽게
이래하면 무엇을 좋아해도
누굴 사랑해도 자신自身 있다

내 삶에는 잔여 시간이 있어요
뉴욕 도착까지 Time-left 마냥

다만 기내에서는 떠나온 출발지,
얼마 후면 발 디딜 도착지 생각.

반해 도착지, Death Intl. Airport.
삶의 기내는 거기 그때가 전부.

기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그런데 먹고 마시고 다녀오고

앉아 있을 때 무얼 하나 보면

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어요

가끔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거나

드물게 책을 보거나 무얼 쓰거나

반해 퍼스트, 비즈니스, 일반석 어디든

가물에 콩 나듯 다정히 담소하는 이들

잔여시간間 서파로³¹, 다시 다감한 대화

31 서파로: [글쓴이] 서로 그리고 따로. 함께 그리고 각자, 각각 그러다 함께.

나는 집도 차도 돈도 필요로 해요

집에 주로 있는 내겐 집이 중重要해요

집에서 오전, 오후, 저녁 1 & 2부.

네 번, 서너 시간씩 내 삶은 하니까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모해요

먼 산골 큰 집, 서울 작은 집 오고 가며

여행집들로 시절 따라 여행 다니니

이동 수단인 차가 정말 꼭 필요해요

거리가 3시간 30분 km이니 차는 꼭!

이런 방식의 삶은 절대로 돈으로 못!
헌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돈 좀 요要!
나와 나의 곁들, 사는 터들, 오고 감을
나의 성정性情의 싫음liking으로 조성了! 재정?

나는 집과 차 그리고 돈을 필요로 해요
내 싫음의 원願 만큼³² 족足하게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필수만큼³³ 중重하진 않아요
필요시 필요 양 갈때기에 지금-이렇게-여기로!

32 만큼: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말.

33 만큼: 체언의 뒤에 붙어,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냄. (例) 너만큼, 형만큼, 농사만큼.

이 글을 쓰고 저 방으로 가
 유화 그림을 그리려 하는데
 커다란 직사각형 캔버스 둘
 그 위에 무얼 그어 내 볼까

글썸은 사고력과 구사력이 要
 그림은 감동력과 상상력이 要
 글은 굵어낸 생각, 종이에 새김
 그림은 상상 추출, 부어 모양냄
 나라는 성정의 에네르기energie³⁴
 나다운 싶음liking의 p패션passion³⁵
 나로서 사는 삶의 f패션fashion³⁶
 자기 존재 핵의 f피션fission³⁷

자신自身 있는 곳에 자신自神이 있다
 이따가 저 방, 나 하나 모셔가
 자아본능 거세된 본성욕망의 신神,
 열정과 풍격이, 지면紙面에 폭발강림!

34 에네르기[독] energie: [영] energy.

35 passion: 열의, 열정.

36 fashion: 어느 특별한 감각이나 스타일. 예술적 감각이 있는 일정한 양식이나 스타일.

37 fission: [생물] 분열, 분체分體, [물리] (원자의) 핵분열. (反)fusion. 융합, 통합.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2024년 10월 29일 ?요일
 2023년 10월 29일 ?요일
 찾아보면 무슨 요일인지 안다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없는 것 같은 정도로
 상실되어, 과거의 무슨무슨 날.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이 무슨³⁸ 요일이에요?’
 What = 무슨, Day = 요일.
 Today는 to+dæg, 이+날

무슨-날을 요일이라 하고
 이-날을 오늘이라고 하니
 요일은 늘 무슨무슨³⁹ 날들
 오늘은 살고 있는 바로 이 날

38 무슨: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는 말.

39 무슨무슨: 대상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쓰는 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리가 내렸다
서리에게 물었다: ‘서리 너 뭐 했니? 너 내림?’

서리가 각 세워 빠직 웃으며 차갑게 답한다:
‘네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하면 또 뭐가 어때?’

세상만사! 누가 뭐 해서 뭐가 일어나고
바뀌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연⁴⁰투성이야!

말 나온 김에… 그리고 너! 이슬 좋아하지?
갑자기 묻는 바람에, ‘아니, 난 [보해海]?’

찌진 눈으로 날카롭게 웃으며, ‘웃기지도 않아
정말! 아침 이슬! 너 좋아하는 영어로 Dew!’

‘올봄 이후로 너 나 어제 오늘 처음 봤지?
난 너 여름 내내 봤어. 내가 조상⁴¹의 이슬이었다!’

너 숨 쉬는 공기에 보이지도 않게 있는 물입자가
바로 나! 땅이 제 온도 따라 나를 서리로 이슬로!’

40 자연自然: 사람이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나 현상. (反) 인공人工, 인위人爲.

41 조상早上: 아침.

말 잘 못해서가 아니라
 할 말 없어서도 아니고
 ‘말해 뭐해?’도 아니고
 말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말없이 잘 있음이 말하고
 할 말 담아둠으로 말하고
 말 아닌 행동으로 말하고
 나의 좋음liking에 말한다

말보단 고요한 내면 말씀
 말보단 조화론 나의 중심
 말보단 강력한 나의 실행
 말보단 무애⁴²한 나의 흐름

바라봄. 내게로 나의 方向
 미소짐. 풍파와 태평성세
 다정함. 자신과 결님들께
 진실됨. 지금 있음과 행함

42 무애無礙: [佛] 막히거나 거칠 것이 없음.

과거가 잊어버린 나
 미래가 잃어버린 나
 지금과 이어지는 나

과거를 제거했다 난
 미래를 제외됐다 난
 지금을 제작한다 난

이곳에 생각을 둔다
 지금에 감각을 푼다
 이렇게 일상을 산다

오늘씩 일용할 지각
 오늘씩 일용할 감각
 오늘씩 일용할 정력
 내일을 가불⁴³ 말라
 과거에 지불⁴⁴ 말라
 오늘을 소비⁴⁵하라

43 가불假拂: 앞으로 받을 임금 따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앞당겨 받음.

44 지불支拂: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

45 소비消費: 시간이나 돈을 들임. 「경제」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재화를 소모하는 일.

쇼펜하우어, ‘인생은 시계추’
고통pain 아니면 권태ennui

박한 인생, 괴로움이기 쉽지
갇춘 인생, 무료해지기 쉽지
모두 인정! 살아 본 경험으로.
정밀 분석! 독서가의 지성으로.

작금 세태, 권태라도 돈 많이!
고된 일들 없는 편한 삶 추구!

시계 밥을 준 시계의 시계추는
풀릴 때까지 좌우를 오고 간다
고정된 개별생명체의 고유상태는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는 것.

돈·힘·도움 없을 때 왜 고통할까?
살길 안 보여서! 살길 찾느라!
권태를 느낄 때 왜 그렇게 될까?
모두 질려서! 새로움이 없어서!

고통에 간 김에 죽대를 새롭게 세워라
권태에 간 김에 무소유 몸부림해 보라

유토피아⁴⁶, 인간이 ArtificialSuperIntelligence까지
 만들어내면, 이룩해 낼 수 있을 거예요
 디스토피아⁴⁷, ASI가 집단 협업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발견하고 창조하고 만들다 보면
 누구에게는 더 나아진 것들의 세상이겠죠
 지금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나 할 수도!
 전자계산기 나왔을 때도 주판 사용하였듯이

46 유토피아Utopia: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47 디스토피아Dystopia: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미래.

증기기관이 전동기로 대체되는 데 100여 년.
자동차 나왔을 때 기괴한 물건이라며 마차用
스마트폰 상용화됐을 때도 그래도 피쳐폰
ChatGPT 나온 현재 역시 검색 사이트들.

나의 現 잔여 생명 동안, 시한부 인생살이 中,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궁리 中
단순 newer 시스템이나 제품 취사선택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 위해 채택 활용!

아집 없는 고집은 없기에
 집착 없는 집념은 없기에
 망념 없는 잡념은 없기에
 불안 없는 걱정은 없기에
 불만 없는 불평은 없기에

매놓음 없이 놓아주는 신뢰를
 고착됨 없이 반복하는 자율을
 뜬구름 없이 땅바닥의 명상을
 예아님⁴⁸ 없이 지금으로 전심을
 없다함 없이 호흡하며 감사를

48 예아님: [글쓴이] 여기 아님. yes or no, 흑과 백의 양자 비교 택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안은 받거나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유類의 평안은 정치국·경제국·

종교국산國產이 아니다

깨어 있는 나의 영과 혼이 지금의 나에게 베풀어 주어
체험되는 나의 현존 상태 곧 보이지 않는 실공간이다

이 평안-공간 안에서 나는 곧 생명이며 지금이다
눈을 떠도 감아도 몸을 움직여도 가만히 두어도
여기 이곳에는 늘 지금. 어떤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오직 나의 봄seeing과 숨breathing과 있am·ing만 흐른다

있음am·ness은 안전히 아닌 안존하게安存⁴⁹ 자리한다
숨breathing은 마음에 기식하지⁵⁰ 않고 자연自然자생
自生한다

봄seeing은 시비선악是非善惡 벗고 나안시裸眼視로
지금只今 본다

평안은 이곳에 자리하고 이렇게 자생하여 지금에 있다

49 안존하다: [+安存-하_다] (사람이) 아무런 탈 없이 고요하고 평안히 지내다.

50 기식하다: [+寄食-하_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다.

추워도 더워도 눈, 비 와도 천둥번개에도
맑아도 흐려도 산들바람이든 강풍이든

인간 심신, 날씨에 영향을 받는 중에도,
날씨에 관계없이 뜻과 정성 다해 살 일.

그 씨알 제 심토心土에 심고 물 주고 가꿔 살릴
그 한 사람. 그자에게는 자신으로 충분타!

‘잠잠하라! 고요하라!’ 감정 이는 제 심호心湖를
꾸짖고 명령하여 심전心田⁵¹옥토玉土로 바꾸는

소요기간 일평생 대공사를, 제 한 날 한 날
거듭거듭하여 이루어 가는 일상의 대가大家

51 심전心田: [佛] 마음의 본바탕. 마음의 지혜와 복덕이 자라나는 밭과 같다는 뜻의 비유적 표현.

요즈음 십 대들 중 많은 여학생들이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에 광란 상태
 [키빼몸]이라는 신흥 종교가 출몰한 것
 소수 SNS 유명 [뼈말라(125)]들이 교주

신도 대표격이 개말라(120). 뼈말라를
 추종하며 모방하고 추앙하며 숭상한다
 인간의 가치, 삶의 목적, 생활양식에 대한
 교리 학습화로 [안 먹음-안 먹힘 by 부모]

못 먹던 시절 후 경제 성장. 영양 공급이
충분해 통통·통통. 피골상접이 희귀! 정반합
사실 [키빼몸]은 시첻말⁵² 표현. [남-보다]가
이 이단 집단이 섬기고 있는 신神의 이름
교주 [뼈말라]의 피골상접의 모습은 신의 현현⁵³
키 165cm 이상, 체중 40kg 이하라면 신계의 여신
종교s's 천국에는 의인과 성인들만 거주한다.
다만 오른 눈알 빠진 채, 오른손 잘린 채로⁵⁴

52 시첻말: [+時體 스 +말] 「주로 ‘시첻말로’의 꼴로 쓰여」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말.

53 현현顯現: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54 [성경]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마5:29)’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마5:30).’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엔 아침과 오전까지
하고 싶어 해야 할 것들을 더 길고 깊게 한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날엔 그 전날 저녁에
하고 싶어 해야만 했던 것들을 더 오래 했었다

평소와 비슷이 일어나는 날들은 전날 저녁 시간도
이른 아침 시간도 ‘더’ 없이 꼭 맞게 싶음 한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인생 조삼모사⁵⁵, 길흉화복 칠팔십.
원숭이들처럼 선先 or 후後, + or - 하는 양자논리⁵⁶ No!

55 조삼모사朝三暮四: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내므로, 아침 네 개, 저녁 세 개를 주겠다고 바꾸어 말하니 기뻐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

56 양자논리兩者論理: [글쓴이] 양자택일, 곧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달히고 막힌 방식. 해 오던 대로 & 남들 하는 대로. [글쓴이의 反양자논리] 새로운 나의 방식으로 & 남들은 평가할 뿐 나 대신 무엇 하나 책임지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삶.

지금 오전 10시 32분. 오늘은 8시부터 이 자리.
커피가 식으면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럼 식고 또 식고
처음 앉았을 때 정성으로 내 준 에스프레소 커피,
아주 뜨거웠다. 식어 물 부으면 다시 뜨거워진다
하고 싶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몸 상태.
먹고 마실 것. 커피와 보온병. 있다면 뭇 문젠가?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자

해서는 안 될 것은 없다며
하길 잘한 것을 해내는 자

이들 제서 저 일하는데
혼자라도 제 일 예서 하는 자

늘 하던 것 거듭하고 있다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도道인 자

해 아래 새것 없는 뻔한 인생
제 새 하늘 새 땅 품고 산다면

죽는 날까지 자신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신선⁵⁷ 인인

57 신선新鮮fresh: 인상이나 이미지가 새롭고 산뜻함. 물이나 공기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과일, 생선 따위가 생기가 있어 싱싱함.

‘하루 종일 어떻게 있고 싶어?’
 ‘일 안 하고 마음대로 놀고 싶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눕고 싶어?’
 ‘호텔처럼 집안일 없이 살고 싶어?’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하고 싶어?’
 ‘보고 싶은 사람 만나 재미있고 싶어?’
 ‘방해 없이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싶어?’
 ‘홀쩍 저 먼 곳, 해외로 여행 떠나고 싶어?’
 ‘새로운 곳 투자 이민 가서 멋지게 살아 보고
 싶어?’_ (‘어? 줄이 다르네? 한 줄로 안 되네?’)_

이 폰트사이즈 한 줄 질문, 다음 줄·生까지
 못 넘어가니까 한 번, 한 줄 제 인생, 진짜
 하고 싶은 것 명확히 답 내서 그것들 맘껏 즐·生!

빛이 넘쳐흘러요 오늘 아침부터
시월 마지막 세상 온통 노란 빛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둠 속 같지만 다시 뜨면 빛 잔치

사실 눈을 감아도 빛 향해 돌리면
어둠 덮인 눈 속으로 빛 툭툭 스며요

천지 빛으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눈, 빛 밝음

내 인생 시월의 마지막 날까지 빛 밝음.
몸속, 마음속, 말言 속, 짓爲 속 나란 빛

색 아리따운 밝음과 따스한 온기와
보드란 촉감 내 비취는 내 존재의 빛

살다가 세상일 아프고 마음 괴로워
눈 꼭 감을 때조차도 맑게 빛나는 내광內光

짜짓기는 움직이는 생명체이면 존재의 이유.
 동물이 짝을 찾아 서로의 허용하에 짜짓기

생명체라는 것은 죽을 개체라는 말과 같다
 죽음 없는 생명은 우주 전체에 하나도 없다

암수 양성 생식을 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특질인
 DNA를 개별체로서의 자신이 죽기 전 남긴다

짜짓기를 위한 성욕, 특히 수컷·남성의 성욕은
 본능⁵⁸이고 본태⁵⁹이다. 이 없이 예 있는 자 없다

사회적으로는 문명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화,
 정신적으로는 인간의 물질화됨⁶⁰. No! 출산·양육!

더 이상 동물성을 지닌 인간 동물로는 살 수 없다!
 단적으로 짜짓기를 위한 집이 투자처가 됐다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는 고민과 선택의 문제.
 성욕으로 짜짓긴 안 하고 해소나 거래를 해왔으니!

58 본능本能: 「생물」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

59 본태本態: 본래 갖고 있는 모양. 상태.

60 물질화되다: (무엇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물이나 재산과 관련된 성질을 띠게 되다.

내가 원하는 나를 그리며
 살기에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반드시 꼭 必! 나에게
 쏙 맞는 날 빚어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난 어떤 이까지 되어 있을까?

나라는 불완전 활활 불가마에서
 나는 어떤 자기⁶¹가 되어 나올까?

사실 이미 깨지고 금 간 채 있다
 해도 또 굽기 위해 내 싶음으로,

나라는 솜씨 없는 도공陶工
 다시 날 빚는다. 오늘 내 온 날.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됐고!
 더욱 구비되어⁶² 가니 된다! 늘!

61 자기: [글쓴이] 자기自己 & 도자기陶瓷器.

62 구비되다: [+具備-되_다](필요한 물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지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

함께하는 것은
누구 하날 위한
일방 헌신 아냐
물론 불싯⁶³ 말빨,
페이크⁶⁴ 스위트⁶⁵ 고백,
모두 지랄 신작!

곁에 있는 자체
함께라는 방식
이런 사랑 해봐!

무얼 그리 사냐?
무시하고 그냥
저냥 살면, 일 나?

63 불싯bullshit: 개소리, 헛소리, 허튼소리, 지랄, (소) 똥덩어리.

64 페이크fake: 가짜, 사기, 헛소문, 모조품, 위조품.

65 스위트sweet: 듣기 좋은, 감미로운, 기분 좋은, 즐거운.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갈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포스트잇 & 사랑

포스트잇은 한동안 엄청 사 모아 놓아서
이젤패드서부터 타이니teensy-tiny한 것들까지
내 사랑은 목적·대상이 없다. 주격 보어⁶⁶.
시내처럼 시작한 사랑은 강물처럼 흐른다
어차피 다 못 쓸 것이니 보는 사람마다 주거나
작정하고 폐기처분할 ‘아둔+멍청=이’는 없을 것

자산이 엄청난 자라도 가진 것 다 쓰려고
살지는 않는다. 제 마음껏 마음대로 쓸 뿐.

그것이 한낱 물품이든 인간의 정신이든
나아가 세인들 모두가 원하는 물질이든
남달리 많이 소유한 자는 양量껏, 실컷 말고
양고⁶⁷처럼 마음 닿는 곳에만 자원하여 푼다

66 주격보어subject complement: 주격보어는 주어와 같은 대상을 설명함. 주어와 보어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

67 양고良賈: 큰 상인. 또는 훌륭한 상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묻고 싶다:

‘어땠어요? 죽음 직전일 때, 죽는 순간,
죽고 나서 그리고 특히 다시 살아났을 때?’

답 없음. 부활 후 행적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런데 오직 한 곳에 등장. 파티 석상에서 발견!: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 하나이더라(요12:1-2).’

내 질문은 나사로 당사자의 답 없이
나 자신의 깨달음으로 자답이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
결국 다시 죽는구나. 내 일상을 죽었다가
산 듯 살면 그것도 참 괜찮은 방식이겠구나!
누구에게도 자신에 대해 답하며 살 필요 없는!’

내 시선.

내가 조종했던 비행기에서
5000ft. 아래 지상을 보듯.
보이는 것 보되 내 항로대로

내 관심.

내가 운전했던 보트를 끌고
북태평양 섬들 사이를 지나듯.
잠깐씩 구경하되 내 항로대로

내 배움.

내가 공부했던 각국의 대학들
그리 긴 기간 학문에 매진⁶⁸하듯.
섬을 갖고 즐기되 내 학로⁶⁹대로

내 사랑.

내가 야기했던 지난날의 공과들⁷⁰
상식, 통념, 도덕에서 벗어나듯.
죄과⁷¹를 뉘우치되 내 애로⁷²대로

68 매진邁進: 어떤 일을 힘써 해 나감.

69 학로: [글쓴이] 항로航路=공로空路+海路처럼 선박이나 항공기가 아닌 배우는 자의 길學路.

70 공과功過: 공로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공죄功罪.

71 죄과罪過: 죄가 될 만한 과실이나 허물.

72 애로愛路: [글쓴이] 사랑이 이끄는 길. 사랑 때문에 가는 길. 사랑 향해 가는 길. 사랑 체험하며 사는 길.

인생을 참으로 즐기는 방식은?

오늘에 자신의 진심을 쏟는다!

오늘에 진심을 쏟는 방식은?

지금만 귀하디귀하게 모신다!

지금울 소중히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긴다!

자기가 세상 중심 되는 과정은?

여기가 자신의 세계임을 믿는다!

자신의 세계를 실현하는 방도는?

자신을 '절대 신뢰하는 너'라 부른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 자신自身 있으면 자연 신뢰난다!

짧게 말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들어줘요 됐다 하기까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란
정말 조금이죠 언젠 모르지만

하니 이렇게만 그저 요렇게만
마냥 저렇게만 잠시 내려놓고

차츰 깊어지고 더욱 기빠지고
진정 싶음하며 매일 나아져요

이제 마쳤어요 모두 되었어요
그대 말하세요 내가 듣겠어요

시간 많으니까 마음 하나라고
가만 읊조리며 진심 말하세요

그래 그렇지요 남은 인생이란
살기 나름이죠 아직 남았어요

새로움은 소망도 바람도 목적도 열정도
다 필요 없는 자족함 = 사랑 작동 상태.

곁에 있는 자체
함께라는 방식
이런 사랑 해봐!

愛포리즘

a p h o r i s m